

서운영의 '집과 사람'



공공임대주택, 무엇이 문제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소한 이름이었던 공공임대주택이 요즘 자주 거론되고 있다. 전세나 월세 등 민간임대가 아닌 국가나 정부기관에서 임대 주체가 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노태우 정부 시절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그 후 국민임대, 보급자리 주택, 행복주택 등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이 모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주택을 점유하고 그곳에서 거주하는 것을 하나의 소비라고 본다면, 소비는 집합소비와 개별소비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부자는 개별소비를, 빈자는 집합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버스, 지하철 등은 여럿이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자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반면 자가용 승용차는 개인이 이용하는 개별소비이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는 재화뿐 아니라 서비스의 차원에서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30~40년 전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간에 차이가 있었다. 당시의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공립학교는 한 학급에 100명이 넘는 것은 예사요, 2부제 수업도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특별활동교실은 전무하다시피했다.

반면 사립학교는 한 학급에 60명 정원에 정규수업 외에도 다양한 특별활동을 하는 등 교육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수업료가 비싸서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이 사립학교를 다녔다. 즉 교육서비스라는 차원에서 볼 때 집합소비(공립학교)와 개별소비(사립학교)로 나뉘는 것이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개인변호사(개인소비)와 국선변호사(집합소비)제도가 있는데, 부자들은 최고급의 개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승소하는 확률이 높다. 이처럼 모두에게 가장 평등하고 엄정해야 할 교육과 사법서비스에서 부자의 개인소비와 빈자의 집합소비로 양분되는 것이다.

생명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생애와 관련된 연금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의료와 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도 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집합적인 공공서비스로는 무언가 미흡하기 때문에 개별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에서는 유료 보험을 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시장에서 개별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과 오로지 공공복지에만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로 계층을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러한 균열은 사회의 새로운 갈등요소가 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등장한 임대주택은 대표적인 집합소비인데, 당시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에서 1.5% 정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거주자가 새로운 사회계층이 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하지만 보급자리 주택(이명박 정부), 행복주택(박근혜 정부) 등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주거서비스는 국민자보다는 서민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주거의 집합소비 서비스는 새로운 사회계층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

각 정권마다 하나씩 쏟아내는 새로운 주거서비스 정책은 언제나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집합소비는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 후 잠깐 군인에게 주택을 한 채씩 무상제공하거나 공공임대하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1980년대 영국의 대처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보수주의로 전환되면서 주

택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막대한 정부 지원금이 소모되는 무상제공이나 공공임대 대신 매입을 유도하는 방안이었다.

일정 기간 이상의 거주자에게는 시장가격의 60~70% 정도에서 그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사회주택과 민간시장 주택의 중간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일명 매개적 주택시장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한 것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보급자리 주택이다. 그 후 현 정부에서도 새로운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큰 줄기는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 및 임대에서 소유로의 전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주택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가구의 자가 거주비율을 높여 전반적으로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무상제공 혹은 공공임대 등의 공약은 포장만 달콤해도 실상은 사회적 비용이 크고 결국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부담으로 다가온다.

현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가 거론되고 있지만, 그 임대주택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었을 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며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건축칼럼니스트>

종교칼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김성연 장흥 보림사 주지

어진 작은 봉우리들이 조화를 이룬 참으로 아름다운 도량이었습니다.

신라말에 도의국사는 37년간 유학을 마치고 마조선사의 제자인 서당지장선사에게 조사의 심인(心印)을 인가받아 귀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마조문화의 세준축 가운데 한 사람인 백장선사를 찾아 가서 거듭 인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백장선사는 “중국의 선법이 모두 동국으로 간다”라고 탄식을 했으니 도의국사의 수행력이 마침내 구산선문(九山禪門)의 종가인 가지산파(迦智山派)를 이루고 오늘날 조계종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웅산 백장선사를 방문하러 참으로 감개무량하였습니다. 특히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행다법(行茶法)이 백장청규(百丈淸規)에서 처음 시작되었기에 이번 행사는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선과 차가 만나기 전에 어느 차약이라는 말이 있었듯이 차는 건강에 좋은 기호식품이었지만 차가 선을 만나서 수행자들의 잠을 쫓고 정신을 맑

게 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반사라는 말이 있듯이 밥 먹고 차 마시는 일상사 그대로가 수행이 되고 더불어서 일체 일상사 행위를 통해서 해탈 삼매를 성취하도록 청규를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수행자들이 차 마시는 행위를 선차라고 하였으며, 선차일여(禪茶一如)라는 새로운 수행정신으로 정립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하는 이렇게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차가 그간 잃어버렸던 역사와 전통을 새롭게 정립하여 다시 중국전하에 알리고 해마다 행사의 주체가 되어 한중 문화교류의 새로운 마당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백장선사는 선종의 성립사에서 보면 최초로 선원의 청규를 제정하여 오늘날 선원의 토대를 세우신 분입니다. 또한 철저하게 이 같은 정신을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말년에 이르러 스승의 노역을 안쓰럽게 여긴 제자들이 농기구를 숨겨

버리자 하루 동안 먹지를 앓았다는 일화는 선가의 아름다운 기풍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종이 독립된 공간을 이루기 전에는 율종의 사찰에서 동거하였지만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고 나서는 새로운 청규가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백장선사는 청규를 제정하여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지난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사회 각 분야마다 질서가 무너지고 기강이 해이해져 언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선사의 가르침은 지금 불안한 상황에 사시는 가정과 직장에서 자기 직분을 다하고 있는지와 같은 자기반성을 할 수 있는 자기 점검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먼 인생의 여정에서 자기점검의 나침반을 가진 나그네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 언제나 당당하게 길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고

광주형 ‘스위스 도제식 직업교육’에 거는 기대



김영일 광주시 일자리투자정책국장

작되었다. ‘도제제도’ 하에서 도제는 2~8년의 기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침식을 함께 하며 기술을 습득해 장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도제제도는 공정제 수공업의 발전에 따라 해체되었으나, 현장 중심의 기조만은 VET과정에 살아남아 있다.

VET 과정의 특징은 학교의 이론교육, 훈련센터의 실무기술 교육 및 기업에서의 현장훈련의 유기적 결합이다. 연간 약 8만 명의 훈련생이 주 3~4일은 계약된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받고, 나머지 1~2일은 학교에서 교육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몇 주간은 훈련센터에서 추가적인 실무기술교육이 이뤄진다. 또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도제교육에 참여한 기업들이 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을 바로 채용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이 고용창출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처음으로 학교중심의 직업교육과 산업현장 중심 직업교육의 장점을 접목한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그 대상은 전국 특성화 고교로 한정했다. 광주시에서는 광주공고와 광

주전자공고가 공모 신청을 해 최근 모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광주공고는 기계시스템과 2개 학과 54명의 학생이 21개 협약 기업에서, 광주전자공고는 자동화 기계과 2개 학과 60명의 학생이 18개 협약 기업에서 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과 직업교육을 병행하게 된다고 한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단의 학생과 학교 및 기업들은 앞으로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도 받게 된다. 학생들은 취업처 확보, 근로시간 보수지급, 취업 시 산업기 능요원으로 군복무 대체 등의 혜택을 받으며, 학교는 매년 시설기자재·운영비 등으로 4년간 80여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 고, 참여기업은 인프라 구축 및 교육훈련 등에 국비가 지원된다.

이런 좋은 결과는 신청 학교의 부단한 노력과 강한 의지, 참여 기업들의 적극적 관심 표명 및 일·학습병행제 등 유사한 사업을 유지한 바 있는 광주 지역의 경험 이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선정된 2개 교가 앞으로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 참여기업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전체

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여 학생들은 도제기업과의 채용약정을 통해 졸업 후 구직기간 단축, 현장중심 교육으로 직무만족도 및 현장적응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은 도제훈련을 통하여 우수한 기술·기능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제훈련 과정과 그 이후의 숙련향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이 고용창출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청년 일자리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어 고학력화에 따른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광주지역 산업계도 핵심 산업의 신규 인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아지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가 청년일자리 창출의 단초가 돼 낙후한 경제도시 광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社說

보이스피싱 총책이 전직 경찰간부라니

조직원만 100여 명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더욱이 총책은 사이버수사경험이 풍부한 전직 경찰간부였고, 현직 경찰은 돈을 받고 간부급 조직원의 수배 여부를 알려주는 등 뒤를 봐주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광주지검은 19일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 ‘몰센터’를 차린 뒤 저축은행을 가장해 대출해 줄 것처럼 속여 거액을 쟁긴 5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6명 구속 기소, 현직 경찰관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도주한 조직원 70여 명을 추적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는 확인된 사람만 2만여 명, 전체 피해 금액은 4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사기에 속아 4000만 원을 날리고 유족자살을 기도한 피해자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해외로 달아난 총책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보이스피싱 수사를 했던 전직 경찰관으로 ‘추특기’를 이용해 금

용사기를 주도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그는 또 자신이 직접 수사한 금융사기 전과자 3명도 범죄에 끌어들었다. 현직 경찰관은 돈을 받고 조직원의 수배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알려줬다. 경찰과 범죄조직이 한통속이 돼 놓아난 것이다.

사기범들은 중국 해커로부터 저축은행 서버를 해킹해 대출을 거절당한 명단에 입수해 범행에 악용했다. 피해자에게 전화해 “다시 심해보니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인지도나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많게는 1억 원까지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으로 이들의 교묘한 수법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자금융 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돼 그 피해가 늘고 있다. 검찰은 달아난 조직원은 모두 검거하고,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과 함께 대포통장 엄단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민들도 의심스런 전화나 e메일은 보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광주 ‘고교 신입생 배정’ 문제점 보완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고교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공·사립 고교 간 학력 격차를 줄이겠다며 성적 등급별 균등 배정 방식을 도입했으나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 학생이 일부 학교에 집중 배정되고 학교 간 편차도 큰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동안 시행해 오던 ‘고교 일부 선택제’를 지난해부터 중학교 내신등급에 맞춘 ‘균등배정’ 방식으로 전환했다.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0~8%, 8~80%, 80~100% 3개 구간으로 나눈 뒤 다시 9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최상위급인 0~4%(1등급) 학생의 학교 간, 공·사립 간 편차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이 올해 광주지역 고교 신입생 배정 분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립의 경우 1등급이 가장 많은 학교는 22명인 반면 적은 곳은 3명에 불과했다. 사립

도 어떤 학교는 23명이 배정되는가 하면 6명에 그친 곳도 있어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위 2% 이내 학생 수 배정은 최대 16배나 차이가 났다. 상위 2% 이내 학생이 불과 1명에 불과한 학교가 3곳이나 되는데 어느 고교에는 무려 16명이 배정된 것이다. 상위 1% 이내의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 역시 4곳이나 됐다.

학교에 따라 학급 수가 다소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편차는 너무 심하다. 성적등급별 균등배정을 통해 입학 때부터 학교 간 격차를 해소 하겠다는 도입 취지와도 동떨어진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고교 신입생 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준을 보완·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근거리 원칙과 학교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둘이네 강아지 환둥이가 길가에 똥을 썼다. 덩그러니 놓인 강아지 똥은 천덕꾸러기 신세다. 참새와 병아리에겐선 ‘똥새가 난다’며 구박을 받는다. 절망에 빠진 강아지 똥을 감싸안은 건 민들레. 강아지 똥은 민들레가 꽃을 피우는 데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행복해 한다.

그림책 ‘강아지 똥’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책이다.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랑을 받았고 피아니스트 이 루마가 참여한 아름다운 음악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다. ‘강아지 똥’은 ‘좋은 동화 한편은 백번 설교보다 낫다’고 했던

고(故) 권정생(1937~2007) 선생의 대표작이다. ‘강아지 똥’은 1969년 기독교 아동문학상을 받았던 작품으로 몇몇 동화집에 실렸지만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이후 그림책 삽화를 그린 정승각씨가 이번 선생이 어린이들에게 구연 동화라며 ‘강아지 똥’을 읽어주는 걸 보고 단행본 출간을 권유했다고 한다.

구연동화는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는 첫걸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구연동화 교육을 받은 할머니들이 어린이집 등에서 동화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다.

최근 침대에 누워서 구연동화를 들는 색다른 경험을 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이 제작한 ‘부케티노’(22일까지) 공연을 통해서였다. 무대 대신, 2층 침대에 가지런히 놓인 오두막집에서 공연이 시작됐다. ‘스토리텔러’ 한 사람이 엄마, 괴물, 7남매 등으로 변신하며 이야기를 들려줬다.

구연동화는 흥미로웠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는 내년, 광주 어린이들은 큰 선물 보따리를 받을 듯하다. 아니, 어른들에게도 행복한 선물이지 싶다. 동화 아이들만 읽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선다.

평생 교회 종자기로 살았던 권 선생은 “자신의 모든 책은 어린이들이 사서 읽은 것이니 인세를 어린이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유언을 남겼다.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www.kcfc.or.kr)이 만들어졌고 안동에는 권정생 동화나라도 문을 열었다.

재단 홈페이지에선 마요네즈 병으로 만든 호롱불, 비료 포대를 잘라 만든 부채 등 소박한 유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육필로 쓴 ‘유서’는 한참을 생각해 잠기게 만든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